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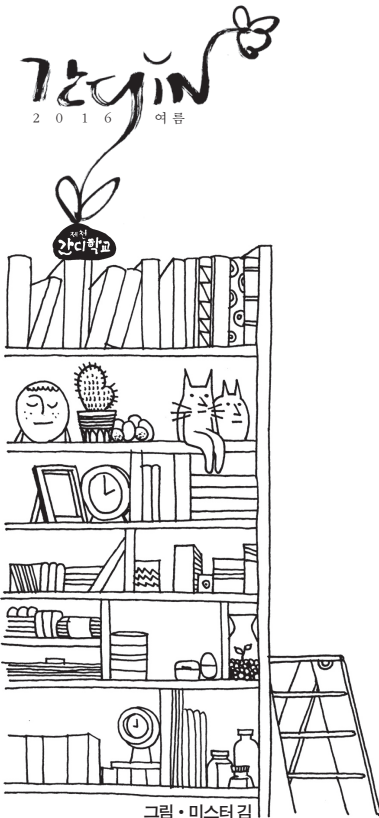
간디IN 2015 봄 호의 산물인 '착한 자전거'는 학생들의 발이 되어 오늘도 도로를 누릅니다.

무더운 선고리의 여름을 맞아 자전거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사용을 위해 면허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참 많은 학생들이 면허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날도 좋은데 뒷좌석에 애인을 태우고 시원한 바람을 맞아 보기 위할까요? 아, 참고로 저 자전거에는 뒷좌석이 없습니다.

실없는 간디의 평화로운 하루가 오늘도 지나갑니다. 2016 여름 호 시작합니다.

-기자 하한 (6학년)



차 례

	여는 글	살아남았다
1부	생활관 이야기	그 남자의 은밀한 궁시령
	MSG	쓰리 간디 파워!!!!!!
2부	간디 학교 교육과정	추 후 학 정
	화제의 인물	후 후 학 정
	반가워요 후원인	후 후 학 정
	간짧소	후 후 학 정
		간디인의 짧은 소식 / 스케줄러
		기자 후기

#살아남았다

김민석 편집장(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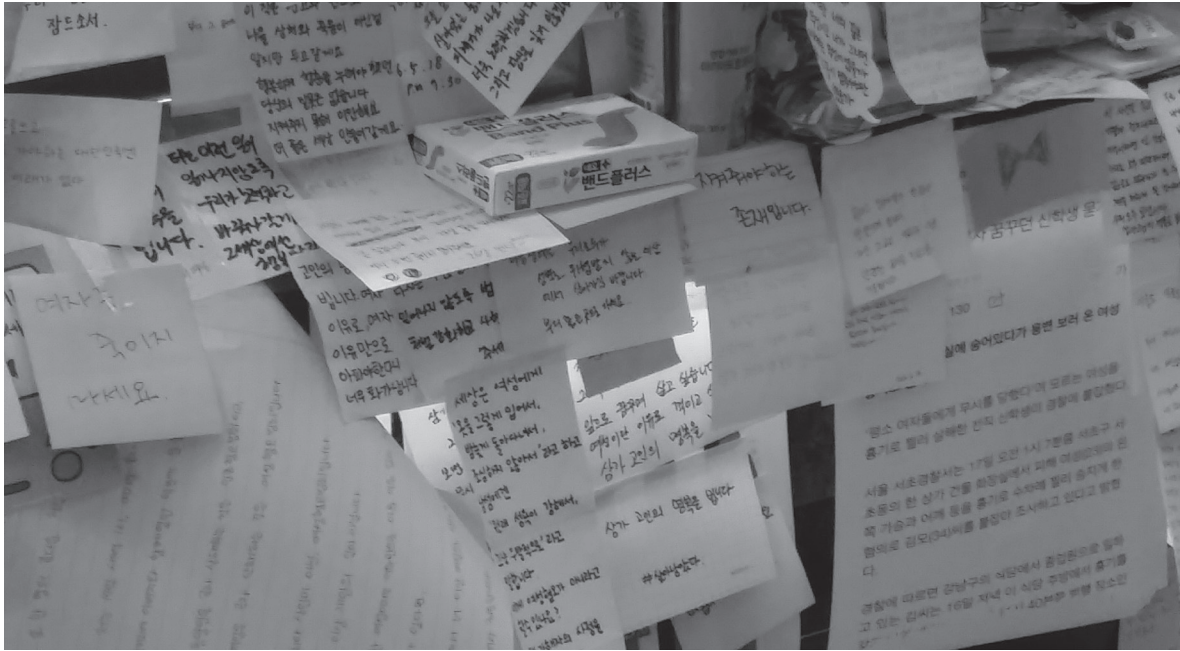
2016년 5월 20일. 강남역 10번 출구를 갔다. 국화꽃 한 송이 들고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갔다. 10번 출구 앞에는 추모를 하러 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대다수가 여성들이었다. 10번 출구 유리벽은 포스트잇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밑에는 국화꽃들이 다발로 놓여 있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갖고 간 국화꽃을 놓고 묵념을 했다. 그 여성분을 위해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나는 말이 없었다. 차마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심란했다. 그곳에서 누군가 놓고 간 상처에 붙이는 밴드를 보았다. 너무나 아팠을 그 분에게 위로와 치유의 마음으로 놓고 간 그 밴드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살아남았다’라는 말을 보고 난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살아남았다’라는 말 안엔 한국 여성들의 전혀 안전하지 못한 현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분노가 있는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난 문장을 보고 있었지만 어떤 여자가 내 귓가에 대고 “우리가 정말 이렇다고 그런데도 정말 모른 척할 거야?”라고 소리 치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정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미안했다. 그래서 소름이 돋았다.

이 일을 두고 말이 많다. “모든 남자가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신병자 하나가 그런 거 갖고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물론 모든 남자들을 다 살인자로 보는 것도 잘못됐지만,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 여성이 차별받고 무시받는 사회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고, 거의 모든 조직에서 리더 혹은 지도자는 남성이다.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여성평등 사회가 아니다.) 여성은 결혼을 하면 당연하단 듯이 집안일을 도맡아한다. 하지만 정작 TV에는 남성 셰프들이 나와서 멋있게 요리를 한다. 여성은 남성에게 대들면 안 되고





떠받들어야 한다. 이건 과장이 아니다. ‘여자가 무슨’, ‘여자가 감히’, ‘어디서 여자가’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뱉는다. 결국 여성은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이런 슬픈 일을 초래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성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들의 외침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우리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이걸 누가 누굴 보호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함께 바꿔 나가야 되는 일이다.

이 일이 매년 그랬던 것처럼 떠들썩하다가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린 또 소중한 누군가의 딸, 애인, 친구를 잃을 것이다. 난 진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하다. 강남살인사건을 보면서, 옥시사태를

보면서, 그 무거운 산소통을 들고 다녀야 되는 피해 학생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슬펐다. 왜 매일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만이 죽는 것일까?

나는 오늘도 우연히 살아남았다. 여성이 아니라서 살아남았고, 그 날 그 배에 우연히 타지 않아서 살아남았다. 우연히 우리 집에서 그 가슴기 살균제를 쓰지 않아서 살아남았다. 당장 내일 나는 죽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결국 힘없고 평범한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게 되는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숨을 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더 이상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선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학교가 바뀌어야 되고, 언론이 바뀌어야 되고, 노동자, 가정, 남자, 여자, 청소년, 어린이, 어르신 모두가 깨어나고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누구도 전혀 괜찮지 않다. 정말로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다. ♡

M멋있는S사람들G간디인
쓰리 간디 파워!!!!!!!!!!!!!!!

생활관 이야기
그 남자의 은밀한 궁시렁

글 기자 이한슬, 최유경, 이성민
사진기자 김담



그 남자의 은밀한 공시렁

요즘 학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단연코 이분! 바로바로 2016년 올해, 새로 오신 사감 쌤이신 동석 쌤이신데요. 이름만 들어도 핫한 이분을 일상다반사가 독점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시간만 2시간 30분, 녹취록 10쪽... 줄이느라 필자가 이주 파김치가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말씀 가득한! 역대급으로 알찬 인터뷰, 얼른 만나 보러 가실까요?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나이는 얘기하지 않을게. (웃음) 너무 규격화되어 있고, 너무 일상적인 보편화에 찌들어 살다가 그게 싫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정동석이라고 합니다.

Q. 자기소개부터 특별한 것 같아요.

A. 그냥 이름만 말하는 건 식상하잖아.

Q. 제천 간디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수학 학원을 운영했었어. 근데 그 안에서 다른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학원을 기존에 학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교육에 관련된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했었어. 근데 점점 운영이 힘들어졌지. 돈 문제도 있고... 일반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것 즉, 입시라는 것에 맞는 수업만을 해야 되는 게 학원인데 그걸 하지 않는 학원

이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믿음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어. 학생들에게서 '나를 좋은 대학교로 보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학원 운영 말고 다른 걸 하려고 이곳 말고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Q. 전 수학 교사의 수학 실력은?!

A. 수학 실력은 지금은 다시 공부를 하면 모르겠지만 공부 안 하면 깝해 봐야 고등학교 등급으로 한 2~3등급?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고1, 고2까지의 아이들과 대결을 한다면 나에게 범위를 주고 시간을 줘야 자신은 있을 것 같아. 근데 고3과 대결을 하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기권할 거야.

Q. 제천 간디 말고 다른 대안 교육에 관련된 시설도 찾아보신 건가요?

A. 원래는 인가된 대안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 보려고 기간제로 들어갔다가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너무 공교육과 유사해서 '이곳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 그러다가 이 정도면 차라리 내가 바꾸려고 했던 학원과 별 차이가 없구나. 해서 간디학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됐지. 많은 고민 끝에 원서를 넣고,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이 학교에 왔어.

Q. 학교의 첫 느낌은 어땠나요?

A.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와서 큰 실망도 있었고, 기대했던 내용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웠지.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Q. 동석 T가 상상했던 학교와 다른 점이 있나요?

A. '자유를 많이 얘기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조금씩 억압받고 있는 것 같아. 이해는 하지만 좀 더 학생들이 펼칠 수 있는 자유를 먼저 주고, '이건 잘 못됐다' 혹은 '잘 됐다'라는 평가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하지만 여기는 틀이 정해져 있는 게 되게 많아서 '내가 했던 큰 기대를 못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처음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조금씩 바뀌 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하고 회의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느리다. 기다리는 게 맞긴 한데 너무 느려서 애들이 조금은 지쳐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

Q. 신입 교사로서 포부가 있었다면!

A. 나랑 있는 게 교사가 아닌 그냥 친구와 같은 함께

있는, 생활관을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어.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왔는데 많이 다른 것 같아. 규칙이 너무 많아. 규칙을 정해 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간혀 있는 것 같아. 생활관이 학교보다는 자유로우니까 여기가 쉽터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여기만 생각했을 땐 여기도 규제가 있는 곳이 되어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집과 같지는 않다.'라는 걸 아이들이 당연시 여기고... '집과 같은 생활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걸 신입 교사로서의 포부라고 할 수 있었지. 포부보단 바람인가?

Q. 학교에 오래 계셨던 정상 T와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관계이신가요?

A. 친구인 거지. 지금은 그냥 힘들든 기쁘든 던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도 둘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을 그런 친구. 그런 거 같아. 편한 사람.

Q. 일반 쌤들과 달리 조금 특수한 상황인 사감 T만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나요?

A. 모든 아이들을 다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 개개인 별로 '애는 누구고 애는 누구다.'라는 걸 학교에 있는 선생님보다도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게 장점이야. 그런데 정말 생활하는 것에 대한 내용 말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거야. 그게 단점이지.

Q. 남자 기숙사에 대한 느낌이나 드는 생각은?

A. 전체를 다 바꾸고 싶었어. 지금까지 해 왔던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고 싶은 거지. 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해 나가고 싶어. 그



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유로움에 아이들이 조금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는 누군가의 질문으로 생각하면서 성장한다면 생활관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고 싶은 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Q. 기숙사에 오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곳에 와서 기숙사에 철쭉을 심은 거야. 아이들이 봄에 꽃이 피서 예쁘다 하면서 보고, 나중에 철쭉이 자라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는데 공이 밟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이유로 철쭉을 심었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나무를 짧은 시간 안에 심어 봤고, 심으려고 생각을 한 것도 처음이야. 철쭉을 심으면서 나 아닌 다

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한 가지만 하고 있었던 나를 발견했어. 가족들을 제외하곤 이렇게 아무런 잡념 없이 어느 한 일에 집중해 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되게 신기했고, 좋았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안 것에 내가 조금은 뿌듯했지.

Q. 동석 T가 독신주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A. 내가 독신주의자가 되고 싶었던 건 22살 때부터. 그때부터 가졌던 한 15년 된 생각. 근데 여자가 싫어서도 아니고 내가 여자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기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기 싫은 이유는, 불편해. 여자 친구로 있는 거는 괜찮아. 얼마나 좋아. 혼자 있는 것 보다 좋지. 옆에 남자가 있는 것보다 낫고. 근데 문제는 애와 평생을 같은 공간에서 그



럴 거라면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애의 힘든 점을 다 들어주고 또 이해해 주고 같이해 주고 그러기엔 내가 너무 작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혼자 살았지만 나는 가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보다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나의 또 다른 대비책?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Q.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게 있나요?

A. 저번 일요일 날 남자 기숙사 회의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나는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건 아니라고.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여기보다 밖이 더 많아. 그 밖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를 필요로 하고, 근데 내가 여기 온 건 나를 찾으려고 왔고 내가 재미있으려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꼭 듣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은 없어. 그냥 내가 아저씨나 삼촌, 형, 오빠라고 불러 줘도 난

상관없을 것 같아. 오빠라고 불릴 순 없겠지만(웃음). 아직은 어떤 교사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게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 같아. 나의 확고한 사고가 정리 되면 그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내년에. 그때 다시 물어 봐.

진지한 대화들이 오갔던 인터뷰, 잘 보셨나요? 명언집 한편 쓰셔도 될 만큼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장장 2시간 30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이야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늘마루의 든든한 아빠, 삼촌, 오빠(?)로 거듭나실 동석 T를 응원합니다. ✨



쓰리 간디 파워!!!!!!!!!!!!!!!!!!!!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 간디 축구 대회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삼 간디 축구 교류는 제천, 산청, 금산 간디학교가 축구 경기도 하고,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며 교류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천 간디에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잠깐!
여태까지 삼 간디는 산청, 제천, 금산의 중간인 금산에서만 개최되었는데, 형평성 등 문제 제기가 많아 작년부터 삼 간디가 돌아가면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이번 경기는 처음으로, 제천 간디에서 주최하게 되었고요. 본 기사는 분리된 중·고등 삼 간디 중 '고등' 삼 간디를 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4월 23일, 대망의 삼 간디 축구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선수이자 취재진인 이한슬 기자와 이성민 기자, 그리고 따까리(?) 최유경 기자 출동! 제천 간디학교에서 주최하는 삼 간디 축구 대회를 취재하러 아침 일찍 일어나 맛있는 밥을 먹고, 기자들은 대망의 경기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 간디를 살펴볼까요?

청풍에 위치한 축구 경기장. 흐릿한 날씨가 축구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았다. 막상 축구장에 가니 행했다. 아무것도 없고 샘들이랑 몇몇 학생이 열심히 라인을 그리고 있었다. 우리는 천막을 세우고 자리를 잡았다. 보니까 금산 학부모님들은 벌써 오신 듯했다. 작년 고등경기 때도 금산이 응원을 엄청 열정적으로 해서 기억나는데, 이번에도 기대가 됐다.

이번 삼 간디는 유독 페어플레이를 강조했다. 욕하면 경고 주고, 간식도 모두 동일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이때까지 학생들의 불만을 듣다 못한 샘들이 작정을 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엔 매너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됐다. 시간이 지나자 금산, 산청이 차례로 도착했다.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벌써부터 지쳐 보였다. 그러다 또 금방 기운 차리고 천막 밑에 자리 잡았다. 트럭 위 중계석도 마련되더니 민석 오빠(5학년), 가람 오빠(5학년), 남궁연(4학년)이 정말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나도 얼른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혼자 가기 무서워서 전에 산청에 교류 간 적이 있는 언니를 끼고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굉장히 다이내믹 하네요.” -제천 5학년 차한비

“이기고 싶어요. 다른 학교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금산고 1학년 황준우
“떨려요. 이번에 축구 경기로 욕하고 싸우지 말고 진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금산고 1학년 손혜원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즐겁게 합시다.” -제천 5학년 이시은
“버스를 너무 많이 타고 와서 힘이 없고, 민폐만 안 댔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뽀시다.” -산청 2학년 김서정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보니, 벌써 금산과 제천의 남자 축구 경기가 시작됐다. 시작하기 전에는 다른 학교가 워낙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길 거라는 생각 못 했는데, 막상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학교에서 연습하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다. 정영학

(4학년), 전하성(4학년), 하한 오빠(6학년)의 슈팅으로 전반전에만 세 골을 넣었다. 중계석도 난리가 났다. 엄청 시끄럽게 떠들면서 중계를 봤는데,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다.

축구 경기는 제천과 금산 여축, 제천 산청 남축, 금산 산청 여축, 금산 산청 남축, 제천 산청 여축 순으로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제천 여축은 금산과 첫 경기를 하고 나면 세 경기를 보고 그 다음 순서였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 줄리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아나운서 셋이 중계를 너무 재미있게 해줘서 정신이 번쩍 하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샘들이 메가폰을 들고 오신 것 같았다. 남자들이 경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신나서 사이렌도 울



리고, 북 치면서 응원도 하고 난리를 쳤다. 옆에 금산도 엄청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다. 응원이 열정적이어서 그런지 진짜 재미있고 신났다. 게다가 옆에 중계도 진짜 웃기게 해서 축제 분위기가 난 것 같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산청 제천 남자 축구 경기였다. 산청 남자는 축구를 정말 잘했다. 축구학고인 줄 알았다. 우리 학교에서도 유명한 금성 베이비! 산청 간디 2학년 중에 박금성 군이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고 전부터 들었다. 2년 전 중등 삼 간디 때 금산 중¹⁾ 남축 주장을 맡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때도 우승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진짜 축구 잘하는 것 같았다. 박금성 군하고 이름은 모르지만 산청 남축 주장 둘이 콤비가 거의 중계석에 앉아 있는 김민석, 김가람 콤비 급이었다.

또 여자 축구는 우리가 뛰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금산 제천 경기가 재미있었다. 박성현(4학년)이 골을 넣었을 때 진짜 멋지게 넣어서 완전 뿌듯했다. 나는 한 골도 못 넣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여러 번 공을 잡고 움직여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이번에 처음 생긴 페어플레이상 투표를 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세 학교가 다 한 표씩 받았다. 그래서 다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시상식 후에 단체 사진을 찍고, 다들 피곤에 절어 있는 채로 학교에 왔다. 축제날이라 학교 밥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 근데 밥만 우리 학교에서 먹고, 학교 별로 다 끼리끼리 먹어서 교류라는 느낌이 딱히 들지는 못했다. 많이 아쉬웠다. 정말 축구만 하고, 밥만 먹고 돌아가는 것 같았다.

1) 삼 간디 중 금산과 산청은 중고 분리, 제천은 중·고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느덧 금산과 산청이 떠날 때가 됐다. 나는 까먹고 있던 인터뷰를 다시 시작했다.

“우선 작년에는 10월에 해서 연습 시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5월에 해서 연습도 많이 못 하고, 제 자신이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교류 목적으로 만난 건데 밥도 다 따로 먹고 해서 아쉬워요. 왔다 갔다 6시간인데 축구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산청 3학년 선수 장진하

“제가 중등도 간디를 나와서 네 번째로 온 축구 대회인데, 항상 축구 대회는 모여서 얼굴도 보고 재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좋아요.” -금산고 1학년 선수 남현희

“저는 교류부장인데 이런 교류 자리가 많이 생겼으

면 좋겠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산고 1학년 선수 이태희

“너무 멋졌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다치긴 했지만 싸우지도 않고 너무 멋졌고, 우리 학년 너무 멋졌습니다.” -제천 4학년 관중 신비아

인터뷰를 마치니 어둑어둑해졌다. 산청과 금산은 우리 학교 운동장에 있는 타이어와 그네를 타고 놀다가 버스를 탔다. 샘들이 우리한테 인사하라고 해서 뭔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아직 친해지기는 멀어 보였다. 그래서 다음 삼 간디 때는 좀 더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금산과 산청 버스를 배웅하니까 그제서야 삼 간디 축구 경기가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기대하던 행사가 물 흘러가듯이 끝나 버리니까 아쉬움도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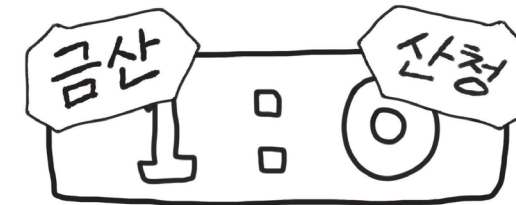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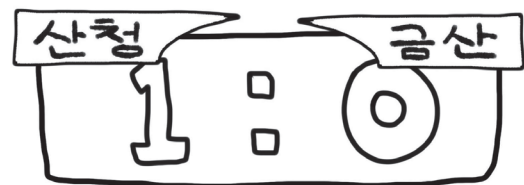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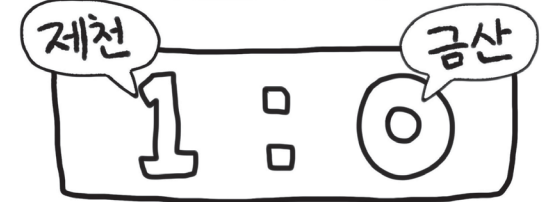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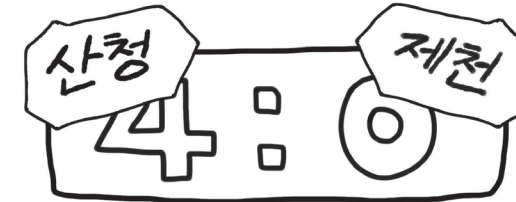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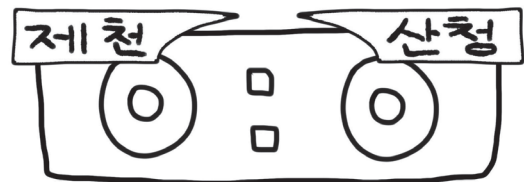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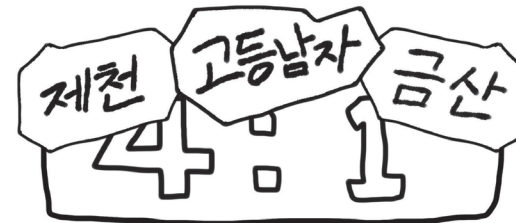


고, 왜 그때 슈팅을 안 쳤나, 패스를 안 했나 하며 후회도 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더 매너 있었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서 나름 만족했던 하루였다. 삼 간디가 이렇게 모여서 축구도 하니까 갑자기 2학기에 있을 음악제가 기대된다. 그때는 서로 인사도 하고 재미있게 놀면 좋겠다!

역동적이었던 경기장 분위기, 생생하게 느끼셨나요? 정말 재미있는 삼 간디 축구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년 중 세 간디 학교가 함께 유일하게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전통을 이어가며 오래오래 즐겁게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이렇게 재미있었으니 내년 삼 간디도 기대됩니다! 🍷

SCORE BOARD

2016
삼강디
축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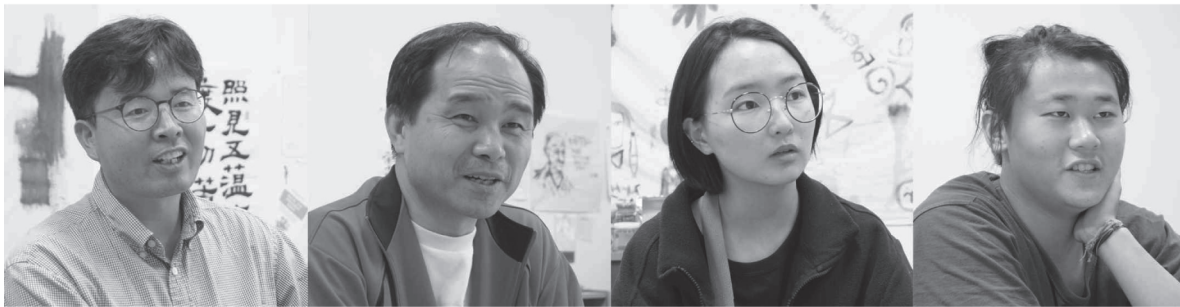


2 부

‘이번 취재는 그런 뜻을 담아 시작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까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통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에 의해 태어난 게 대안학교라면 새로운 ‘대안’ 교육의 2막을 열기 위해선 우리도 세상의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천 간디학교 개교 14주년을 맞은 지금, 아직도 제천 간디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곳일까요?’

-기사 본문 중에서-

올해 새로 개편된 금산의 ‘무학년제’를 바탕으로
제천 간디학교의 교육과정을 바라보았다.



[왼쪽부터 금산 교사 대표 박영곤 쌤, 교장 태영철 쌤, 학생부회장 박정우, 학생회장 김준성]

기획/취재 : 이예슬

자료 조사 : 권윤서

글 : 하한

흐르는 물이 맑기 때문에

-금산 간디고의 무학년제-

기획 / 취재 이예슬

자료 조사 권윤서

글 하한

제천 간디학교는 그 이름만으로도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이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대안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천 간디는 2002년 산청 간디학교의 중등과정이 분리되어 제천에 새로 터를 잡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고 첫 2, 3년간은 [제천 중등 졸업 ⇒ 산청 고등 진학]이 공식처럼 되었었지만, 중등 친구들의 이후 과정, 그러니까 더 성숙된 아이들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자연스럽게 고등 교육과정이 생겨났고, 현재의 큰 틀이 만들어 진 게 2004년입니다. 그 후 여덟 기수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올해도 졸업을 앞둔 16명의 학생들이 6학년(고3)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흐름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 초 간디학교의 개교는 너무나 당연하게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흐름에 앞장서게 되었고, 최근 더 나은 환경을 고민하며 생기고 있는 혁신학교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을 받는 교육 인구의 절대 다수가 조금씩 간디학교를 비롯한 대안학교들의 유사한 환경과 교육과정을 원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초기 설정은 시대를 앞선 걸음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교육과정과 철학은 쉽게 탄생되고, 얇은 고민을 통해 다듬어지며 유지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 간디가 어떤 교육 현상이 될 것 인가하는 고민은 우리가 항상 당면하게 되는 과제이고, 외면해선 안 되는 문제가 됩니다. 점점 많아지는 혁신학교들과 제천 간디학교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제천 간디의 교육을 더 자신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취재에서는 ‘자유’와 ‘선택’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간디’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금산 간디학교에서는 올해부터 흥미로운 교육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이 받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히 혁신적이라고 표현하던 금산의 변화는 마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 실험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금산 간디고의 무학년제

“학생들이 나의 관심사가 아닌 것엔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 입학하면 학년별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 것들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면 교사의 개입이 더 많아지고, 학생들도 왜 해야 하는지 더 모르는 거죠.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수준까지 갔고, 그걸 깨달으면서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금산 간디고 교사 대표 박영곤 쌤-

공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적 활동에는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해석에 따라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면 배움은 더 이상 주체적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지 못할 때 교사의 개입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더 중심에서 멀어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금산간디학교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런 문제 지점을 자각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배움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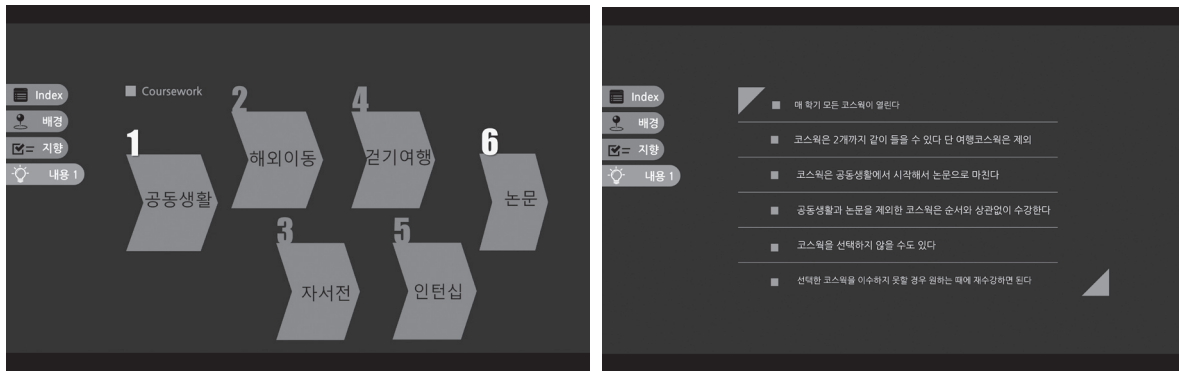


사진1, 2 - 금산 간디 고등과정 설명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본인의 선택과 자기발전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생각에서 (무학년제라는)교육과정이 탄생한 거예요…….(중략) ‘네가 선택을 하고, 네가 책임을 져라’ 라는 게 금산에서 추구한 자유였고, 학생들의 자기교육 선택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금산도 처음엔 교육과정에서의 자유가 ‘선택적 자유’였어요. 하지만 점점 교사들이 끌아놓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핵심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섯 가지 과정만 남겨두고, 모두 (학생들의)선택에 맡긴거죠.”

-금산 간디학교 교장 태영철 쌤-

올해부터 새로 개편된 금산 간디고의 무학년제는 이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설정해 놓은 속도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며, 보다 넓은 선택이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금산 간디 교육과정 개편의 골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중 핵심이 되는 6가지만을 남겨놓고 모두 털어낸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끌아놓는 배움의 길은 여섯 가지뿐입니다. 학기마다 여섯 가지 코스 중에서 학년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과정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는 학생의 ‘쉽’까지도 포함됩니다. 지금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도 존중해 주는 것이죠.

또한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필수 과정 외에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수업 목표, 주차별 계획, 평가, 강사 등 수업의 모든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천 간디의 ‘개인 프로젝트’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제천 간디에서는 개인 프로젝트가 다른 선택 수업들과 같이 개설되는 것에 비해 금산 간디에서는 교사가 개설하는 수업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배움에 대해 더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제천 간디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름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무학년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학년제는 각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다름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자신에게 맞는 배움을 선택한다는 것은 각자의 배움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죠.

한국의 대안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할 초기에는 모두가 경쟁하고 획일화되는 공교육과는 다른 조금 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대안학교들은 공교육의 6-3-3-4 구조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며 생겨났습니다. 서문에서 풀었던 새 시대의 새로운 교육적 변화는 이 구조를 깨는 데서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가치를 지향했지만 그 속에 숨은 개인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교육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과 각자의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금산에서 시도한 무학년제는 학년제가 가지는 오류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20명 남짓 되는 아이들이 입학해서 같은 과정을, 같은 속도로, 같은 수준으로 이해할 거란 설정 자체가 문제인 거죠. 한국의 유, 초, 중, 고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약 600만 명 이상입니다.¹⁾

공교육의 6-3-3-4 구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생을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든 구조입니다. 큰 예외가 없다면 나이에 따라 그 해의 학년이 정해지고, 각 학년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구조 속에선 개인의 독단성을 ‘특별함’이나 ‘엇나감’이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 간디에서도 학년제라는 설정으로 인해 배움의 과정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등

3학년 과정인 논문이 그것인데요. 3학년 과정에서 논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과정인 4학년(고등 1학년)이 되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4학년이지만 4학년의 교육과정을 밟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학생은 5학년 과정을 먼저 밟게 됩니다. 5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논문을 병행하고, 논문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정상적인' 4학년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늦게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결과의 질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논문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건 그 학생의 배움을 대하는 태도나 의지가 좋지 못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학생을 교육과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특이'한 상황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과만이 아닌 과정에 대한 맥락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도 **무학년제의 가치를 대입해 본다면**, 그 시기에 그 학생이 아직 논문이라는 과정을 밟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배움에 대해 의지가 나지 않는 건 직접 '선택'하지 않았고, 그 시기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아이에게 주어졌던 선택이 논문이 아닌 다른 선택이었다면, 특별한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설정대로 배움을 이어가는 '보편적'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 자폐를 가진 아이들의 입학이 큰 폭에서 허용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한편 개선의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문제는 학교의 구조적인 환경으로 인한 부분도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조적인 문제만큼이나 교육과정이라는 측면도 같은 무게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제천 간디의 '진급'

다른 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 제천간디학교 3학년(중3) 대상 -

이따 75%

설문 1

[설문1]

이제 제천 간디 속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좋을지 풀어 볼까 합니다.

제천 간디는 중·고 통합 6년 과정입니다. 중·고의 교무실과 학생회장이 따로 있지만,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제천 간디에선 보편적인 3년제 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입학'이라는 의미가 담긴 '진학'이 아닌 학년이 올라가는 '진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의 과정을 담아 고등의 배움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고등 1학년이란 호칭 대신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부릅니다.

중·고 통합 6년 과정은 한국의 거의 모든 중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진학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덜어 줍니다. 반면에 3학년 과정이 끝날 때 스스로 중등 3년을 돌아보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모여 진급 평가를 하지만 어느 중학생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다음 교육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설문2]

설문 1을 보면 고등과정을 앞둔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다른 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75%의 학생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설문 2에서 타 학교로의 진학 고민을 하는 절반의 학생들이 '또 다른 교육과정의 호기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받았던 중등교육의 평가와 앞으로 받게 될 고등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타 학교로의 진학을 고민하는 이유는?

- 또 다른 교육과정이 궁금해서 50%
- 학교에 전반적인 흥미가 떨어짐 37.5%
- 관계의 어려움 12.5%

설문 2

[설문 3]

고등과정을 2년째 진행 중인 5학년(12학번)은 3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고등 진학률이 100%입니다. 12학번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4를 보면 고등과정에 진급한 이유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른 고민하기 귀찮아서'와 '다른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항목을 꼽았습니다. 이 상위 2개의 응답에선 고등과정을 '선택'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현재 3학년의 75%가 타 학교로의 진학을 고민하지만, 정작 실제 타 학교 진학을 '중요한 선택지'에 두고 있는 학생이 한 명뿐인 걸 보았을 때(설문 3) 학생들이 정말 제천 간디의 고등과정을 선

[설문 1 - '있다'에 답변한 학생]

'설문 2'에서 답변한 고민을 토대로
다른 학교로의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설문 3

택해서 들어왔는지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설문 4]

6년 과정이 가지는 심적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은 고등과정을 앞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지만 '다음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나 열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등 진급이 학교 생활을 기대하고, 계획하며 학창 시절의 제2막을 여는 과정이 되기 위해선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3학년 움직이는 학교에 타 고등 대안학교 탐방이 있지만 그 탐방지로 진학을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진급 과정에서 충분한 자기 선택이 가능해야 하고, 다른 학교와의 비교를 조금 더 상세히 하는 과정을 통해 타 고등

[5학년 대상]

제천간디 고등과정으로 진급한 이유는?

- 다른 고민하기 귀찮아서 35%
- 다른 학교에 대한 정보부족 25%
- 관계의 지속성이 아쉬워서
- 고등과정에 대한 기대 11%

설문 4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고등으로 진급한 학생들이 제천 간디의 고등과정을 선택했다는 의미도 보다 깊이 가질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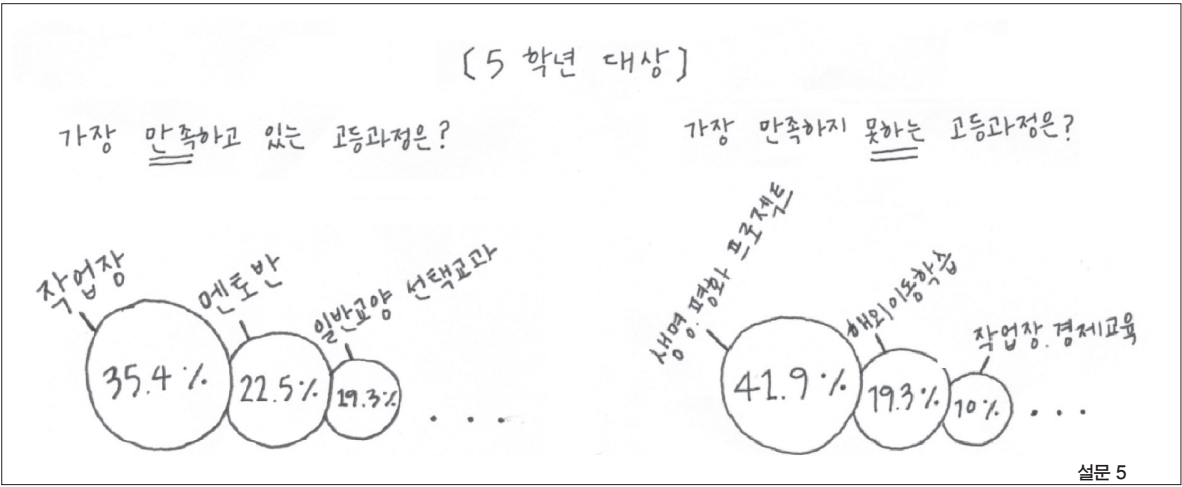
제천 간디의 무학년제

자신이 선택했다는 느낌이 적어서일까요. 제천 간디학교 교육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고등 교육과정 중 필수로 설정되어 있는 몇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실제 고등과정을 2년째 다니고 있는 5학년 학생들이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지 알아봅시다.

[설문 5]

설문 결과 작업장, 멘토반, 일반 교양 선택 교과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 반대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수업은 생명, 평화 프로젝트였고, 해외 이동학습, 작업장 경제교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과정으로 꼽은 작업장은 4, 5학년이 섞여서 구성되며, 원하는 작업장을 선택한 구성원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수업으로 꼽힌 생명, 평화 프로젝트는 중등과정에서부터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업의 연속과정으로 4학년 맨 평화, 5학년 맨 생명, 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인 혹은 모둠 단위로 한 학기 단위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제천 간디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정입니다.



무학년제의 첫 번째 기본적인 형태는 배움에 대한 학생의 선택입니다. 가장 만족하고 있는 작업장과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생명, 평화 프로젝트는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

로 학생들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수업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위 결과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만족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새로움’, ‘소수’, ‘섞임’입니다. 멘토반에 경우 관계에 대한 신선함과 새로움이란 이유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작업장에서도 소수의 학생들이 운영한다는 점과 학년끼리 섞이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위 두 개의 과정을 보면 같은 **학번끼리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비교점이 생깁니다.

또한 각자가 직접 기획하고, 접촉하고, 평가하는 개인무빙과 인턴십이라는 두 개의 과정은 제천 간디의 고등 과정이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임을 말해 줍니다. 중등 3년간 같은 학년끼리의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올라온 고등과정에서도 학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배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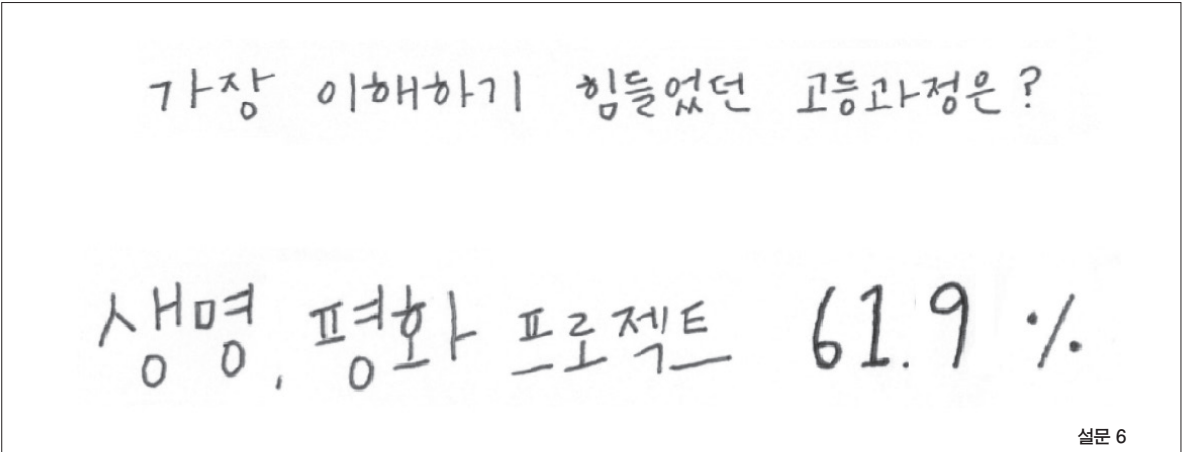
무학년제의 첫 번째 형태가 자유였다면, 두 번째 형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학년**’이라는 구조를 깨는 것에 있습니다. 금산에 도입된 무학년제는 ‘**고등 3년**’이라는 구조로 인해 ‘**자신의 배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측면이 많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중·고 통합 6년 과정에선 ‘**자신의 배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중등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같은 학년**’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신선함이란 고민도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천 간디 고등과정에서 운영중인 무학년제의 형태(작업장, 멘토반)의 높은 만족도는 **앞선 고민들의 해소 지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 6]

그 다음으로는 수업의 **이해도**입니다. 생명, 평화 프로젝트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제기한 ‘**학년**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이란 문제의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의 낮은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 설문 6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설문 6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육과정은 ‘**생명, 평화 프로젝트**’로 꼽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 나온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과 같은 의견들은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너무 강압적이다**’, ‘**자발적이지 못하다**’ 라는 의견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결여가 프로젝트 수업이 가지는 높은 ‘**자유성**’조차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도의 결여는 어떤 탓에 생기는 걸까요? 프로젝트 수업의 자유도를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프로젝트 수업은 선택에 따른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배움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작업장은 작업장별로 (프로젝트 수업에 비해) 전문적인 지도교사가 배정됩니다. 그에 비해 프로젝트 수업에서 멘토의 역할은 개인이든 모둠이든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 팀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지는 전적으로 구성원에게 달



려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결여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획은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하다고 인식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요?

또한 수업 시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작업장 경제교육**’을 포함한 ‘**작업장**’의 수업 시간은 1주일에 총 7시간 반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그것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죠. 그마저도 4학년 때 ‘**해외 이동학습**’, 5학년 때 ‘**생명 여행**’ 등 프로젝트 수업의 연장으로 진행되는 추가 과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야 합니다. 부족한 시간 탓에 이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기획하는 프로젝트의 범위를 좁게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수업은 학교의 핵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런 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그를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야 하지만, **빡빡한 고등과정에서 프로젝트 수업에 시간을 더 배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필수로 정해져 있는 자유는 곧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같은 무게로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 교육과정들이 하나 둘 겹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에 대한 부담과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의 에너지 소모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굳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라는 점과 ‘**선택**’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부합하는 과정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부합되지 못한 과정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제천 간디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학년제의 형태인 ‘**작**

업장'과 '멘토반'이 가장 높은 만족도로 나타난 건 우연일까요? '관계'와 '선택'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는 앞으로 논의될 교육과정 개편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어떤 걸음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에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의 동의를 통해 결정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칭 '혁신'이라고 표현하던 금산 간디학교의 교육과정 개편과정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대가 달라지고, 그 세대에 맞게 교육의 흐름도 바뀌어야 해요. 대안학교는 그 부분에서 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안교육의 핵심이죠. (금산의 교육과정 개편은) 아예 새로운 세대가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확 바꿔 버린 거예요.”

-박영곤 쌤-

금산 간디고의 교육과정 개편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학기가 끝나고, 겨울에 진행된 교사연구 수 때 결정된 만큼 2016년 새 학기를 맞이해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주어졌습니다. 학년제로 1, 2년간 학교를 살아온 아이들에게는 갑자기 담임이 사라지고, 평소보다 늘어난 자유 탓에 자칫 책임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게 초기화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강당에 모였습니다. 학교의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시간, 술, 외출과 같은 기초생활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학생들이 모여 다시 만들었고,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개편을 위해 교사들이 가졌던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거라며 흐뭇해하던 박영곤 쌤의 표정에서 한편 부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진심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개편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20명은 자기 일로 생각해서 많은 의견을 말하고, 50명은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나머지는 지쳐서 쓰러져 있고 그랬죠(웃음).”

“(공동 생활이) 되게 재밌었던 게 방학이 끝나서 다들 짐을 들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기숙사로 들어가지 말래요. 학교가 초기화되어서 기숙사 규칙이 없다고... 애들이 긴장해서 모였어요.”

“모든 생활 규칙들을 학생들이 모여서 다시 짰어요. 그래도 다들 신중한 태도로 임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초기화가 되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치킨이 평일에도 합법화가 되었다는 정도?(웃음) 조금씩 수정된 규칙들은 많지만 큰 틀에서 바뀐 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새벽까지 회의했

던 게 의미가 있었던 거 같아요. '바뀐 게 크지 않지만 바꿀 수 있구나.'라는 점을 학생들이 깨달은 게 가장 큰 의미 아니었을까 해요.

-금산 고등 학생부회장 박정우-

제천 간디학교의 걸음으로

중·고 통합 6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천 간디에서는 고등 3년제로 운영되는 금산보다 변화와 실험을 위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등학생 이해도와 공감대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부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네 분 또한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다'며 무학년제에 대한 확신을 한편 아끼기도 했습니다. 어떤 속도로, 어떤 내용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는 정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에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에선 구성원이 얼마나 비슷한 온도로 '공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산 간디는 교사회의 높은 의지로 빠른 시간 안에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학기 초반 한 달여간 시간을 내어 다른 구성원들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두의 공감을 통한 이해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취재를 통해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가와 같은 이야기는 당장에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꽤 긴 시간 대화할 수 있는 주제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침조회를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설문지를 작성해 주는 모습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에 서있는 지금, 변화가 걱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흐르지 못하는 물은 맛도 없습니다. 조금은 고여 있었음을 인정하고, 세차게 흐르는 제천 간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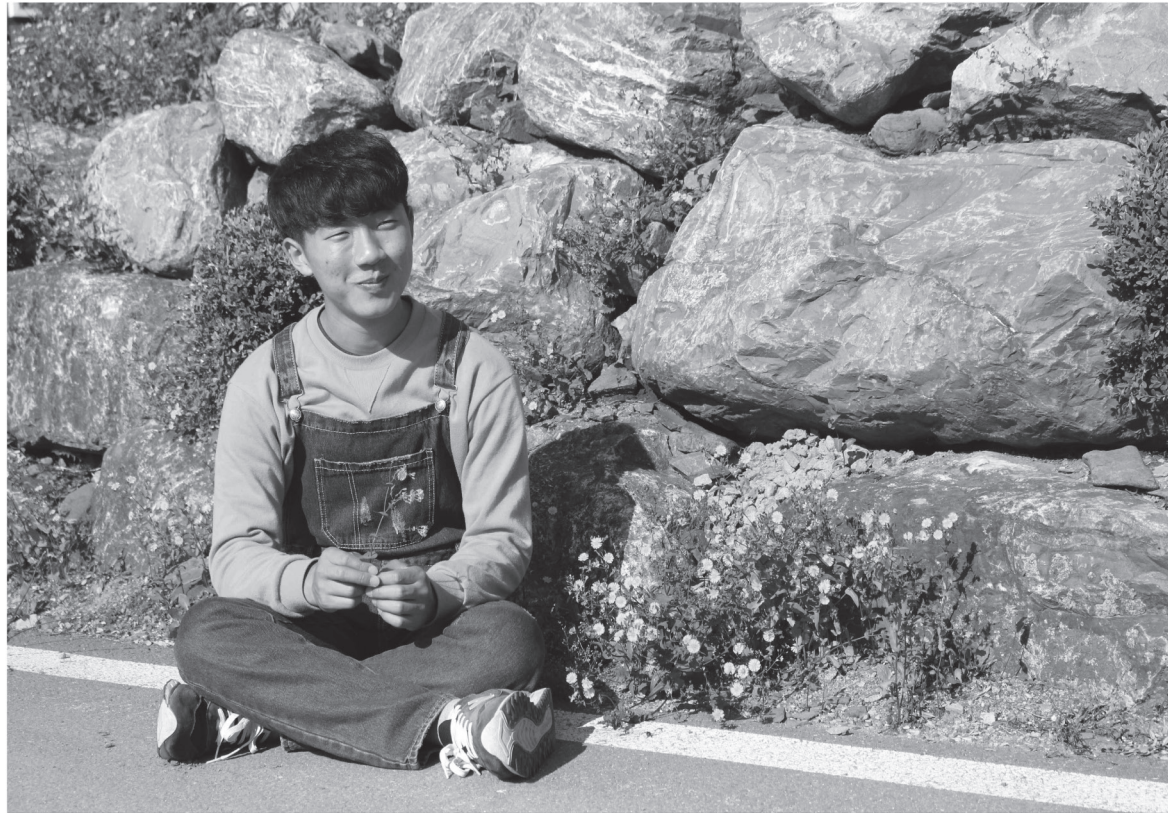
마침

참고
1. 설문 1~6 -진급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제천 간디학교 14학년, 12학년.
2. 각주 1 -한국교육통계연구센터 <http://std.kedi.re.kr/index> -유, 초, 중, 고 학생 수 현황. 2015년 기준 총 6,819,927명.
3. 참고 자료 1 -설문 '제천 간디 졸업생, 어떻게 살고 있나요?' -설문 김정환.
4. 참고 자료 2 -제천 간디학교 소개 자료집.
5. 참고 자료 3 -비인가 대안교육현장 교육과정 운영 연구 -연구 책임자: 하태욱 / 공동연구자: 최경미, 강옥희, 이경희, 장윤재(대안교육연대) / 자문위원: 대안교육연대 연구원 -출처: 대안교육연대 <http://psae.or.kr/>
6. 삽화 -이불(15학년), 하정민(15학년).



사랑꾼의 이야기

3부



사랑꾼의 이야기

우리 동네 변호사 조영도 후원인

간쫘소

이한결 박우제 최문형

간디IN 2016년 여름 호 '화제의 인물'에 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 왔습니다. 학교에 나타나 자마자 여기저기 드립으로 뽕뽕 터트리고 다니는 드립계의 신홍강자 고성일(1학년), 농구, 축구 등 학교에 모든 운동을 접수한 넘버원 운동꾼 신주현(1학년), 요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인기남, 대세남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숨은 매력의 소유자 유한울(3학년) 동점에 동점을 기록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이 후보들을 제친 엄청난 그분은 바로바로 5학년 안상윤 군입니다! 난 절대로 사랑 같은 걸 못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최고 사랑꾼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중인격의 신비스러운 인터뷰와 동화 안에 사는 왕자 같은 매력을 풍기는 멋진 화보까지 지금 확인하시죠.

기자- 사랑스럽게 자기소개 한 번 해 주세요.
상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안상윤입니다.

기자- 좀 길게 해 주세요 ~
상윤- 저는 사랑꾼으로 뽑힌 5학년에 안상윤입니다.(웃음)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웃음).

기자- 이번 여름 호 '화제의 인물'에 선정되었는데, 소감이 어때요?
상윤- 아~(후회하듯이) 학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요즘 대세인 한울(14학번)이를 상대로 이겨서 정말 놀랐어요. 난 원래 사진 찍는 거 잘 하지 못하고 안 좋아해서 한울(14학번)이가 뽑히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뽑혀 버렸네요.(웃음) 뭐 나쁘진 않았어요.

기자- 본인이 사랑꾼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상윤- 별로 생각 안 해 봤는데, 일상다반사 설문지 보

고 놀랐어. 나는 사랑꾼이 아닌데, 원래 오글거리는 걸 안 좋아해서(웃음) 그런 것은 별로... 내가 왜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그럼 사랑꾼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어때요?
상윤- 난 사랑하고 손잡고 안고 그렇게 오글거리는 것들을 안 좋아해요. 그때마다 몸에 살짝 소름이 돋는데...(웃음). 그런 말 안 좋아해서 들으면 소름 돋아요!

기자- 이제 간디학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데 자신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상윤- 나의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아...(후회) 아니야! 나 진짜 사랑받는지도 몰랐고 그런 캐릭터인지도 몰랐어요. 설문지 보고 알았다니까요?

기자-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은 뭐예요?
상윤- 그런 거 없는데..., (진지) 블랙홀같이 한 번 들

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죠(웃음)… 아~ 진짜 매력 없는데(웃음)…

기자- 자신보다 더한 사랑꾼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상윤- 난 사랑꾼이 아닌데!(웃음) 나보다 사랑꾼 더한? 나보다 더한 사랑꾼은 많지요. 아니! 내가 원탑이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한 사람 없어요!(웃음)

기자- 사랑꾼이 알려 주는 연애 꿀팁 같은 건 없어요?
상윤- 이거 정말 엄청난 비밀인데(웃음), 똑똑한데 바보인 척해야 해요. 그게 엄청난 포인트죠(웃음). 믿어 봐요!

기자- 본인은 똑똑해요?
상윤- 장난 아니지요. 완전 똑똑해요, 천재야 천재. 이걸 여기에 꼭 실어야 돼요! 나 엄청 똑똑해요. 근데 사람들이 날 바보로 알더라고, 난 정말 똑똑한데. 이걸 실어 줘요(웃음).

기자- (기습적으로) 구구단 시작 9×8은?
상윤- (바로) 72.

기자- 7×4는?
상윤- (바로) 28.

기자- 오~
상윤- (웃음) 봐, 나 똑똑하다니까요?

기자- 겁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겁이 많은데, 왜 그렇게 겁이 많아요?
상윤- 예전에 TV를 보다가 서프라이즈에서 빼에로가 어두운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본 후로부터 어두운 곳에 가면 그게 보여서 너무 무서워요. 나 겁쟁이 아닌데, 에이~ 진짜!

기자- 어두울 때 혼자 기숙사를 못 간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상윤- (웃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날 너

무 파헤치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가니까?!

기자- 예전에 어두울 때 올라가는 데 40분이 걸렸다는데??
상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40분이 걸려?! 하여튼 나 무서운 거 싫어해요. 어두운 공간에 혼자 있는 거 진짜 싫어요.

기자- 사람의 눈을 10초간 못 맞춘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상윤- 눈은 진짜 못 맞춥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특히 누가 날 쳐다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못 쳐다봐요. 이유는 딱히 없는 거 같은데, 뭔가 서로 쳐다보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 눈을 못 맞춥니다.

기자- 연애할 때는?
상윤- 그게 문제예요. 눈을 못 마주쳐요(웃음). 그래서 날 안 쳐다볼 때 쳐다봐요. 아무튼 눈 마주치는 건

진짜 못해요.

기자- 인터뷰가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봐요.
상윤- 지금도 내가 사랑꾼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걸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나갈 때 마다 사랑꾼이라고 친구들이 계속 부르거든요(웃음). 난 그런 거에 약해서…

번외-Play List

연애할 때 듣는 노래-

에릭 남, 웬디<봄인가 봐> -노래 분위기가 좋다.

혼자 있을 때 듣는 노래-

크러쉬 <잊어버리지 마> -가사가 슬프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크러쉬 -크러쉬 노래 중에 조용한 노래들이 다 좋다.

좋아하는 노래-

오혁 <소녀> -듣자마자 계속 듣게 되는 명곡이다. 🍷









우리 동네 한의사 조영도 후원인

'우리 동네 한의사'를 얘기한다면 이분이 딱일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한의원을 하신 지 어느덧 20년, 한의사 조영도 후원인을 만나 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조영도입니다. 저를 인터뷰하러 오시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초중생들이 많이 오죠.

Q. 인터뷰를 자주 하시나 봐요.

A. 한의원 주변에 학교가 많다 보니 진학 문제 등으로 인터뷰하러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초등학교도 많이 찾아오고,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은 자기 진로 계획으로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직업 관련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Q. 간디학교와의 인연이 궁금해요.

A. 언제부터 후원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7~8년 전 쯤 대학 동기였던 친구 아들이 간디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친구에게 간디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소개받았고 후원제도도 알게 되어 후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 후원하기 전부터 간디학교는 매우 유명했어요. 당시 이우학교와 간디학교는 아이의 교육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간디학교의 철학이나 내용을 알게 된 건 후원할 무렵이었어요. 간디학교 소식지를 읽어 보면 내용보다도 청소년 시절에 대한 회상과 함께 괴리감도 많이 들어요. 간디학교 학생들의 생각이 담긴 글을 보면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으로 느끼고 생각했던 것과 수준이 같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대학 시절에 했던 고민들을 중·고등 학생들이 하고 있으니 당연하게 괴리감이 생겼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중학생인데, 저희 애들이 고민하는 것들과 달라서 소식지를 볼 때마다 간디학교 아이들은 이 정도의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사는구나 해요. 친구를 통해 간디학교 학부모님들을 가끔씩 만나다 보니 생활적인 면이나 학교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저 이런 학교들이 어려움 없이 잘 유지되는 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Q. 한의사는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A. 한의사 일은 가업이었어요. 제가 어릴 땐 한의사란 직업이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 의사를 했기 때문

에 한의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업으로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과학이나 공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공대로 가지 않고 한의사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의학 전공으로 대학을 나왔고 몇 년 동안 누군가의 밑에서 한의사 일을 배우다가 20년 전 이곳 화곡동에 한의원을 차려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저희 아들들까지 가업을 이어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의대 가는 것도 매우 힘들고 아이들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으니까 가업을 잇기는 힘들어 보여요

Q. 한의학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의 한의학을 하시나요?

A. 요즘은 성형 분야도 있고 알레르기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의원도 생기는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내세우는 분야는 딱히 없고 주로 관절이나 동통질환¹⁾을 다루요. 한 동네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질환을 잘 다루는지 알려져 있더라고요.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Q. 방을 보면 감사패 같은 상장이 많은데 어떠한 계기로 받게 되셨나요?

A. 한의사협회라고 한의사들의 친목모임이 있는데, 공동의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대처하기도 하고 한의사끼리의 일도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한의사가 된지 얼마 안 돼서 한의사협회에서 막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 위에 선임들이 여러 일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마치면 수고했다고 주는 감사패예요. 저에게 별 의미는 없고 지금은 제가 후배들에게 일을 시키고 감사패를 주네요.(웃음)

Q. 한의사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일과 힘들었던 일을 꼽자면 무엇일까요?

A. 단순해요. 환자가 나오면 가장 보람차죠. 치료가 되면 아플 때와 비교 되는 모습, 비포 애프터가 있는 거잖아요? 애프터를 본 순간 행복한 감정이 들죠. 역



시 힘들 때는 고쳐지지 않을 때예요. 비포 애프터가 생기지 않고 계속 아픈 걸 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내 손을 거쳐 생기는 결과니까 당연히 생기는 감정인 것 같네요.

Q. 한의원이 쉬는 날에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A. 낚시를 좋아해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 사람이 없는 곳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교외로 나가서 혼자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오는데 낚시를 하러 가면 낚시꾼끼리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또 앞으로는 역사를 공부해 보고 싶어요. 역사나 세계사에 관심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는 어려워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어요.

Q. 한의사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결국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

는 일이어서 환자의 병이 나았을 때인 것 같아요. 매우 고치기 힘든 병이거나 누구도 병의 원인을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치료되면 매우 큰 보람을 느끼는데, 이런 순간이 인생에서 몇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Q. 요즘 간디학교에 감기가 유행이에요. 특히 기침이 엄청 심한데 학생들에게 재채기 낫는 법을 알려 준다면?

A.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생제를 먹는 것보다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봄에 나는 봄나물들. 쑥, 달래, 봄동 같은 나물들을 먹어도 좋고 제천 부근이 모과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모과를 잘 말렸다가 그냥 끓여서 물처럼 먹거나 꿀을 넣어 모과 청을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

Q. 마지막으로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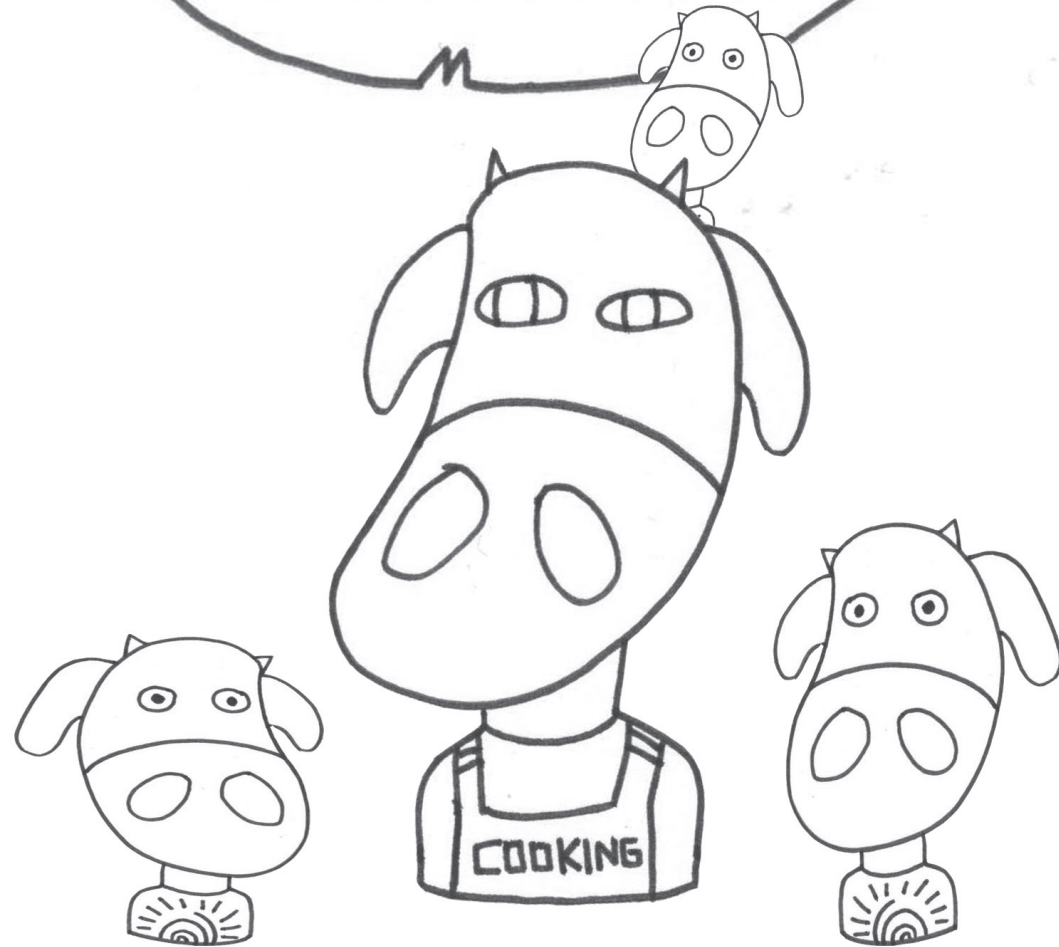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대안 학교를 보낸 학부모나 보내지 않은 학부모 모두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끝없이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일과 길을 걷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을 가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마다 따듯한 미소와 친절함으로 맞이하시는 후원인을 보면서 참 보기 힘든 '우리 동네 한의사'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감기가 걸려 콜록거리는 기자에게 한약과 간식거리를 주시며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보단 생각하고 유의하며 행동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열심히 한 후에 얻는 결과에만 신경이 쏠려 과정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

해야 얻는 성과가 값지다는 걸 알려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조영도 후원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간디학교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간디인의 짧은 소식

음메~ 다시 찾아온 간짧'소'야.
여름에도 어김없이 간디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왔지. 간디학교에서 일어난
재밌는 소식, 우리 아들과 함께 지금
바로 알려줄 테니 따라오라고!



4월 22일 자전거 면허시험



여긴 학교 운동장, 지금은 자전거 면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야. 작년 일상다반사에서
학생들의 교통수단 문제 방안에 관한 기사를
써가며 후원받은 자전거야. 일상다반사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지.
면허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은 마음껏 자전거를
타고 덕산을 누빌 수 있어.
나도 자전거 시험을 보러 가야지~



어머, 내 정신 좀 봐. 우리 아
들 어디 갔지? 자전거 면허시
험 보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 애들아 우리
아들 좀 찾아 줘!



5월 7일~8일 전야제&대동제

우와~ 학교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적은
처음이야. 학생,교사,부모 모두 모여 즐기는 축제
인 대동제는 가장 큰 학교 행사야.
전야제날에는 북적북적한 야시장, 트럭위에서 공
연을 하는 트럭쇼로 보내고 다음날인 대동제날에
는 신나는 운동회를 한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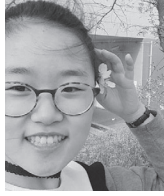
-자전거 면허시험 사진에 있는 새끼 소를 찾아주세요-



1 일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7 일
1월 1일 노도기	2월 2화 대위	3월 3수 희포	4월 4목 우왕	5월 5금 우왕	6월 6토 우왕	7월 7일 우왕
8 대동계	9 오포해우노	10 1학년 등산	11 51815	12 4학년 귀가	13 2학년 등산	14 서원일
15 4학년 필리핀취직	16 상의날 행사	17 1학년 등산	18 51815	19 4학년 무악이어야	20 2학년 소풍	21 내일이 데드라인이다
22 4학년 필리핀취직	23 왜 우리는 포경을 안하지	24 31	25 여기도 뭐라고 그러잖아	26 2학년 소풍	27 2학년 소풍	28 교과방포리
29 29	30 30	31 31	여기도 뭐라고 그러잖아	26 2학년 소풍	27 2학년 소풍	28 교과방포리

animani!! (필리핀에서 쓰는 달걀그림, 이란 뜻)

1 지이다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30	31 31	32 32



권윤서 신입 기자(1학년)

안녕하세요! 신입기자 권윤서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기사가 나왔네요. 물론 저는 한 게 없지만... 가을 호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ㅎㅎ 바쁘게도 신입기자 잘 챙겨준 하한 오빠와 예술 언니 고맙습니다~

(신입기자는 기사를 잘 쓰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 신기하고 대단했답니다!!!)



이성민 신입 기자(1학년)

이번에는 동석 쌤과 2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도 하고, 녹취도 풀고! 저번 봄 호보다 한 게 많았던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삼 간디 기사 재밌게 쓴 한슬 언니도 수고했고! 10쪽짜리 녹취록을 3페이지로 재미있게 줄인 유경 언니 짱!이에요. 인터뷰할 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동석 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상다반사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담 사진 기자(2학년)

1, 2의 모든 사진을 찍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이 잘(?) 나온 편이라서 다행이네요. ㅎㅎ 기사 열심이 쓰신 기자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하 삽화 기자(2학년)

삽화기자가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삽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제가 하게 됐네요. 하하하하하하 힘들어도 아자아자아자아! 암튼 이번 호도 모두 수고하셨고, 가을 호도 열심히 아자아자아자아.



박우제 기자(2학년)

이번 여름 호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화제의 인물을 처음 맡았는데 엄청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마감도 지키고 했던 거 같네요. 화보 찍어 준 문형 누나 고맙고, 3부 같이한 한결이 형도 수고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정말 짜증나게 기사 쓰라고 해 준 재하야, 고마워! 다음부터 그러면 없애 버릴 거야~♡ ㅋㅋ



이한결 기자(3학년)

쉬어 가는 여름 호였던 것 같습니다. 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가을 호부터는 더 열심히, 생각하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형 사진 기자(3학년)

으아~드디어 끝이 났네요.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의미 있었습니다. 첫 화보와 동시에 성현 언니가 필리핀으로 떠나 버리다니... 그래도 항상 아무것도 안 한 기분으로 기자후기를 썼었는데, 이번 호만큼은 그렇지 않아서 뿌듯하네요! 가을 호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들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최유경 기자(3학년)

감사합니다.



이한솔 기자(4학년)

필리핀에 가서 끝까지 같이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생한 유경이 성민이 수고했고, 가을 호에서 뵈요~~



이예슬 기자(5학년)

이번 호에도 정말 정말 한 게 없어서 굉장히 민망하네요. 하한 오빠, 윤서 고생하셨어요. 다음 호에는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네요(...) 편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호에 뵈요!



하한 기자(6학년)

6년간 19편의 기사를 썼습니다. 학교에서 지낸 가장 행복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지면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일한 기자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김민석 편집장(5학년)

편집장이란 역할로 네 번의 소식지를 냈습니다. 편집장 일을 잘했다고는 말 못 하겠습니다. 기자들한테 신경 못 써 준 부족한 편집장 밑에서 기사 써 주신 기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해 줘서 한 호, 한 호, 잘 넘긴 것 같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별 탈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학년도☆ 제천간디학교 신입생 모집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제천간디학교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고 통합 6년제 과정입니다.

- 모집정원 : 중학교 1학년
- 모집지역 : 전국

| 지원자격

- 가.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
(홈스쿨링 및 비인가 초)
- 나.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

| 전형일정

- 가. 원서 접수 : 6월 6일(월) (www.gandhischool.org)에서 교부)
- 나.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다. 2차 전형 (신입생전형)
- 라.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마. 3차 전형(추첨) : 필요

| 입학설명회(학교방문의날)

- 일시 : 5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본교 강당

서류전형료 : 20,000원

※ 입금계좌 : 농협/양희창 333-12-291505 (반드시 학생 명의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전형 캠프비용은 추후 별도 공지

문의 | 홈페이지 : www.gandhischool.org/ 전 화 : 살림터(행정실) 043)653-5791~3



광고 있나요?
전할 소식 있나요?